



[뉴스] 해외 출장 나선 JY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육성 본격화 02



Economy

코스피 2947.38 (-15.04)	코스닥 1032.77 (+1.51)
금리 (미국 3년) 1.953 (-0.021)	환율 (원-달러) 1180.40 (-2.10)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서울 강남구 현대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 수능 특별판에 실린 답안지를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국어 6월 모평과 비슷... 수학 고난도 줄어

###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대교협 “상위권 변별력은 있을 것” 작년 불수능 고려하면 평이한 수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난도가 대체적으로 평이한 가운데, 수학영역에서는 최고 난도는 줄고, 중난도 문제가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6월·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였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과 입시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은 전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두 차례 치른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쉽게, 9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전 모평보다는 어려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오수석 교사(부천 소명여고)는 “상위권 변별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학위권 학생에겐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입시학원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 금년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며 “평소 어렵게 출제된 과학기술지문 또한 지문의 길이가 짧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진학사는 “그러나 지난해 수능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이한 시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수학 영역의 난도는 지난 모평과 비

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의 김정환 교사(대구 해화여고)는 “수학영역은 모평 난이도와 비슷하다”며 “기하의 경우 다소 어렵고, 미적분은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고난도 문항은 15번, 21번, 22번 문항을 꼽았다. 김 교사는 “15번 문항은 원의 성질과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완성형 문항으로, 모평에선 출제되지 않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생 위치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달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수석 교사(부천 소명여고)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위권은 변별력을 갖췄고, 상대적으로 중난이도 문항이 늘었다. 추론을 통한 문제해결력 문제가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ihj@

## 국민지원금 ‘반짝’ 효과... 소득격차 소폭 감소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하위 20% 月소득 21.5% ↑ 고소득층과 소득 양극화 개선

올해 3분기 들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 개선이라는 분석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94만원)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1분위는 일자리, 임금 등의 증가로 근로소득이 23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22.6% 늘었다. 사업소득도 12만4000원으로 20.7%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76만3000원으로 22.2%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증가 폭으로는 전체 소득분위 중 가장 낮았다.

국민 88%에 집중됐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는

개선됐다. 국민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전년동기대비 0.58배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1년 전(5.92배)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만큼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분배 개선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반짝’ 효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20%에 집중된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득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m-커버스토리

<디지털 전환>

# 비대면·DX 시대 무한 데이터 관리 IT계의 블루오션

## 클라우드 시장 진출 속도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포털, SI 기업부터 쇼핑몰, 여행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클라우드 시장에 탑승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클라우드를 주력 사업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세로 떠오른 시장을 두고 기업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 ◆ 가상망으로 맞춤형 기능 제공하는 ‘클라우드’

클라우드란 컴퓨터 파일을 저장할 때 작업한 컴퓨터 내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컴퓨터 위치한 저장 공간을 뜻한다.

### 코로나禍 비대면 근무 확산 디지털 전환 수요도 증가세

IT 기업, 쇼핑몰·여행사까지  
관련사업 진출 경쟁 불 붙어

네이버 클라우드 매출 26% ↑  
성장성 입증... 기술확보 총력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작업한 컴퓨터에서만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나 동일한 업무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클라우드는 활용도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 백신을 예약하면서 클라우드가 활용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백신접종 예약에서 부족한 시스템망으로 문제가 생기자 40세 이하 백신 예약부터는 클라우드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기업들은 비대면 근무가 늘어나자 클라우드 협업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게 일상이 됐다. 클라우드



비대면 시대에 클라우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유토이미지

는 자체망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서 개인 정보나 중요한 문서를 보관 및 처리하는 기능에 강점이 있다.

이에 클라우드 기능 중 협업툴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 토스랩의 협업툴 잔디, 티맥스의 Tmax WAPL(티맥스 와플), 네이버클라우드의 네이버웍스, NHN의 NHN두레이, 협업툴 콜라비, 협업툴 플로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특유의 시스템 복구력은 기업들이 협업툴을 사용하는 이유로 꼽힌다. 클라우드는 만약 오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중앙에서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디지털 전환 수요 노리는 IT기업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업 환경을 클라우드화 시키는 디지털 전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시장 수요를 놓고 포털, SI, 여행 플랫폼 등 IT 기업들의 진출도 불붙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 필수 기술인 클라우드를 놓고 국내 양대 포털이 진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3분기 실적발표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 성장한 962억원을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카카오도 올해 출범한 카카오프라이즈를 주축으로 클라우드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청와대 “독도, 역사·지리·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영토”  
▲ 국민의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사진 뉴시스

▲ 윤석열 “선거, 소수만 하는 게 아냐... 다같이 가야”  
▲ 여야 대선후보들 “정치가 청년들 미래를 열어줘야”



▲ 김 총리 “적극적인 남북대화도 한반도 평화·안정 최선”  
▲ 폭탄 중부세 고지서 곧 온다... 9→11억 ‘기준 완화’ 무용지물 /사진 뉴시스